

# 승리신문

## 열반과 해탈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 부처님·하나님이 되면 마음속에 극락, 천국이 건설돼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 진실로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다. 만약 진정한 종교와 학문이 존재했었다면 이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럽고 우리 인생들이 무지의 어둠 속을 헤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인생들을 바르게 이끌어 줄 확고한 정신적 지주도 없었고 당면해 있는 인생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줄 타당성 있는 진리도 존재해본 적이 없었다.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우주는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인간들로 하여금 이처럼 고통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가” 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단체와 무수히 많은 박사님들이 있건만 그러한 의문에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기에 정도령은 “이 세상에는 참 종교가 없었으며 참 학문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진정한 윤회는 업보, 죄 등이 피에 의해 자손으로 이어지는 것

불교에서는 윤회설이 보편화되어 있다. “윤회”는 사람이 죽으면 살았을 때의 업보에 따라 짐승이나 다른 사람 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무척 힘들다고 한다. 생로병사를 거듭하며 살아온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얼핏 생각하면 윤회설이 타당성있게 여겨지지만 윤회설은 사실 옳지 않다. 윤회설이 옳은 것이 되려면 죽는 생물과 다시 태어나는 생물의 수가 같아야 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이나 그밖의 생물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윤회설은 잘못된 낭설에 불과하다.

사람은 죽어도 그의 후손은 존속한다. 후손 속에 그의 피가 유전되어 있으므로 그 후손 속에 그의 영혼이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은 죽어도 그 후손들 속에서 그대로 이어져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업보도 후손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윤회는 “피의 윤회”이다.



#### 죄, 업보를 벗고 해탈하면 피의 윤회, 곧 죄의 윤회로부터 벗어나, 영생체가 되는데 이것이 “열반에 든 것”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생은 곧 그 조상들의 삶이 되는 것이다. 조상이 지은 죄를 후손이 벌 받고 조상이 쌓은 덕으로 후손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피의 윤회”는 계속되는 것이다. 친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해도 조카와 같은 가까운 친척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죄, 업보를 벗고 해탈하여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는 피의 윤회, 곧 죄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나면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되는데 이것을 “열반에 들었다”고 하며 또 “생로병사를 해탈했다”라고도 한다.

불교도들이 “성불합시다”하는 합장 인사를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미륵불이 되자는 것이다. 바로 열반에 들자고 하는 것이다.

#### 죽어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도통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것

범법경 등의 불경을 살펴보면 죽어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완전한 도통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그 부처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부처님이며 만물 속에 불성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과 만물이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성경에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기독교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그릇되게 받아들이어 인간을 단지 한중의 진흙덩이이라고만 알고 있다. 이는 인간이 성불, 성령회복, 원시반본하여 신불(神佛, 하나님·부처님)로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략인 것이다.

마귀는 6천 년 전 하나님을 인간으로 전락케 한 바로 그 마귀이며 “사방권세 잡은 마귀”로서 영생했던 하나님을 오늘날 100세도 못살고 죽는 인간으로 전락시킨 바로 그 원수마귀이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해와가 먹은 선악과이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었다.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적고 있다(시편82편 6절, 신명기 14장 1절,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분명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나니라”(눅17:21)고 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라고도 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수많은 구절들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공중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도하니 악신인 공중신이 인간을 복되게 해줄 리가 없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우리 인간의 몸이 신의 성전이 됨이 분명할진대 그릇된 교리에 몰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뒤지 못하고 교회나 절들을 찾아서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 인간 속에 부처님, 하나님이 있어

부처님, 하나님의 성전에는 부처님, 하나님이 계시므로 부처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인간 속에 부처님,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공중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며 당연히 그곳에는 천국도 없다. 우리 인간들 각자 각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처님, 하나님이 되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극락,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다. 바로 불국토, 에덴동산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제 생미륵불·이긴자의 이름으로 부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언된 이긴자가 출현하여 자신 속의 사망의 요소를 100% 죽이고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이 세상의 학문과 종교의 맹점을 널리 알리고 참 학문, 참 종교를 온 인류에게 펴고 있는 것이다. 이긴자는 미래에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구하신다고 하는 불교의 미륵불로서 잘못된 종교와 학문을 고쳐서 바로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새로운 영생의 학설을 논하고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고 한 성경 구절의 사실이 이긴자가 있는 “동방의 땅 끝 땅 모퉁이” 즉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죽고 싶지 않으니 죽지 않고 저 높은 창공을 새처럼 훨훨 날고 싶으니 날아가는 자유, 이러한 자유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슬픔과 아픔을 벗어나 후 영원히 즐거워할 이 피안의 분향이 지금 승리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2]

#### “무서운 백보좌 (白寶座) 심판자 (審判者)”

전 인간이 누구를 막론하고 6,000년간 죽은 자도 무론대소하고 이 사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는 너무나도 무서운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지, 예수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벗길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체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으니 의심을 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심판에 걸려 영원무궁토록 꺼지지 않는 불구렁덩이에 들어가는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긴자가 되시어 직접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짜들이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베일에 가려져 있는 하늘의 비밀을 단계적으로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면 죽정이는 날아서 결국 불구렁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고 놀라운 진리를 듣고도 못 깨닫고 진짤가 가짜가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이기는 삶

리더의 지능과 명료한 사고능력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속성이다. 하지만 지능 하나만으로는 결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지능이나 기술적 능력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속적인 고성과를 창출하는 일부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감성지능이 높다.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감성리더십이란 구성원들이 즐거운 기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해 주고 배려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차가운 지성만이 아닌 뜨거운 가슴, 즉 감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의 랄프 라센(Ralph Larsen)은 회사가 리더십의 계발을 위해 연구팀으로 하여금 존슨앤존슨에 있는 358명의 중간관리자들을 비밀리에 집중 관찰하도록 했다. 45%의 여자와 55%의 남자로 구성된 358명의 간부들은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높은 잠재력을 지닌 집단의 간부들은 모두 리더십 능력인 올바른 인격과 성품, 감성 지능, 인간관계 능력, 열정과 자신감, 동기부여 능력, 의사결정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가운데 한 가지 이상씩은 갖추고 있었다. 여기서 그들 간의 문화적 차이는 전혀 무의미

### 리더의 감성지능

했다. 즉 뛰어난 리더들의 감성적 역량은 출신에 관계없이 고른 수준을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능력은 기업에의 업무가 진행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중요하게 인정받는 것이었다. 감성지능은 다음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① 자기 인식 능력(Self-Awareness) : 자신의 기분, 감정, 취향 등과 이러한 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② 자기 관리 능력(Self-Regulation) : 부정적인 충동과 기분을 통제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 행동하기 전 판단을 잠시 보류할 수 있는 능력. ③ 타인 인식 능력(Social-Awareness) : 타인의 감정과 시각을 헤아리고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반응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기술. ④ 관계 관리 능력(Social Skill) :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능력, 공통의 입장을 발견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리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즉 풍부한 감성지능을 바탕으로 한 감성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킬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스스로의 성과에 대해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리더와 부하직원 간의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 유대감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므로 오늘날 리더에게 있어 감성은 매우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되었다.\*

### 인류는 하나, 누구든지 내 몸처럼



예배 안내 (032) 343-9981

평일 1부 예배: 새벽 5시~6시,

2부 대예배: 오전 9시~10시,

3부 예배: 오후 2시~3시,

4부 예배: 오후 7시~8시

토요일: 평일 예배 3부까지 동일,

4부 예배: 오후 5시~6시

일요일 대예배: 오후 1시~3시

###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완벽하고 조리 있는 설교를 할 수 없어



#### ▲승리회보 제94호 1면 헤드라인 캡처

1987년 9월 5일 제4차 세계 전도 순방길에 오르신 이긴자 조희성님은 첫 도착지 미국 뉴욕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셨다. 그 당시 미국 뉴욕방송국 TKC(The Korean Channel)에서 조희성님은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2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면서 살아본 예가 없습니다. 단상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염려하면서 단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입에 말씀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 《관련 설교를 5면, 6면, 7면, 8면 전격 게재》

— TV방영 총4회 중 2회분 영문번역 —

설교는 하지만 설교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뉴욕방송국에 가서 방송할 때, 우리 교포들이 하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를 쓴 기록을 가져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나는 그러한 설교 대본을 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단에 서서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 한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한 시간을 말하게 되어 있고 두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두 시간을 말하게 되어 있고 세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세 시간을 말하고 다섯 시간 말하라고 하면 다섯 시간도 말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품을 하면서 깜짝 놀래요. “유명한 이제 통일교 목사 문선명이기도 설교 대본을 써가지고 와서 방송을 했고 또 조용기 목사도 역시 설교 대본을 가지고 와서 그 설교 대본을 읽는 그러한 설교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나더러 목사라고 합니다. (2003. 6. 9)\*